

## 《講評》

### 印省熙論文（日本語の「は」と韓国語の「가」の対応様相）

#### 《講評 1》

この論文は「は」と「가」について、述語が「名詞述語文」か「動詞述語文」か、前接名詞が「人」か「物」かといった指標と「は」と「는」に見られる主題・対比, 「가」と「가」に見られる主格・排他といった意味を基にその対応関係を考察したものである。

「は」と「는」が文頭・文中のどちらに現れるかに着目し, 「は」は文頭に置かれ主題として働くのに対し, 「는」は文中に置かれ対比性を強く表すことを述べた上で, 対比ではない「は」は「는」を使用せず「가」に取って代わられるという指摘は興味深い。しかし, 例文(14)・(16)において文頭・文中のどちらに「は」を置くかは翻訳者によって異なりはしないだろうかという疑問が残る。また, この論文では前接名詞が「人」の場合を考察対象としていたため, 「人」か「物」かということと4つの形式の間にもどのような関連性があるのかについては詳しく触れられていなかった。この点は「物」を前接名詞として取った4つの形式の考察によって明らかにされるだろう。

#### 《講評 2》

이 논문은 일본어 조사 ‘は’와 한국어 조사 ‘가’의 대응 양상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본어, 한국어 대조 연구에서 ‘は’는 ‘는’과, ‘가’는 ‘가’와 대응된다고 논의된다. 하지만 모든 예에서 이런 대응 양상을 보이는 것은 아닌데, 이 논문은 이 점에 주목하여 ‘は’와 ‘가’의 대응 양상을 설명하려고 하였다. 즉, 일본어는 ‘명사술어문’이, 한국어는 ‘동사술어문’이 선호된다는 것과 ‘は’와 ‘가’의 대응 양상이 관련이 있음을 논의하였고, ‘は’와 ‘는’의 의미 차이 또한 ‘は’와 ‘가’의 대응 양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런 논의는 일본어와 한국어의 문장 특성이나 조사 사용의 차이를 밝혔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을 듯하다. 다만 일본어는 ‘명사문’의 성격이 강하고 한국어는 ‘동사문’의 성격이 강하는 것은 비교적 잘 알려진 특성으로, 일본어의 ‘は’, ‘가’, 한국어의 ‘는’, ‘가’의 대응 양상과 그리 관련이 깊은 것일까 하는 의문이 있다. 또한 ‘는’, ‘가’에 대한 논의에서는 전후 문맥을 통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 《講評 3》

翻訳文を検討した結果, 日本語の「は」と韓国語「는」が対応しない理由は, 第1にまず, 前者が提題性の意味が強いのにに対して, 後者が対比の意味が強いということ, 第2に日本語の「は」は名詞述語文を好むのに対し, 韓国語の「는」と「가」が動詞述語文を好むことを述べた論文である。助詞の意味だけを比較するのではなく, 文章全体の構造と助詞の関係を視野に入れた議論を行っているところがこの論文の優れた点である。